



김 성 현 | 한국생명문화원 원장
(ceokim21@hanmail.net)

지구는 물의 행성

1. 생명으로 본 지구

그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지신, 천신, 용신 등 신하나 자연신앙의 차원에서는 많이 거론되었다. 또 신비한 영험성을 지닌 존재로 본 예는 허다하였다. 분명한 점은 하늘 높이 따스한 태양이 있고, 그 아래 차가운 지구가 있기에, 이들의 생명작용에 의해 만물이 생성되고 자랄 수 있다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예컨대 햇볕의 따스하고 밝은 기운은 양기(陽氣)요, 땅의 차갑고 어두운 기운은 음기(陰氣)로서, 이들도 교접작용이라는 생명작용을 통해 생명들을 생성시킨다는 사실로 볼 때 지구도 하나의 생명임이 분명하다. 지구는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로서 수많은 개체생명들을 잉태한 후 다음 탄생도 시켜왔다. 아울러 이들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생을 마감하면 가슴에 묻는 등 지구는 지구생명의 역사이자, 생명문화의 산실이기도 하다.

지구가 하나의 큰 생명이라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개체생명은 보다 작은 생명들이다. 또 이들은 지구라는 생명을 구성하는 생명공동체의 구성원들이기도 하다. 결국, 개체생명은 모두가 지구생명이 자신의 지속성 확보를 전제로 한 자기조직능력에 의하여 양산된 복제물로서 '작은 지구(small

earth)'들이인 셈이다.

1.1 생명으로서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온전한 생명이 되기 위해선 필수적인 생명의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 자기의 고유성을 지녀야 한다. 둘째,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다른 사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운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은 다른 생명과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존재라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개체생명들의 생명집합체가 바로 지구생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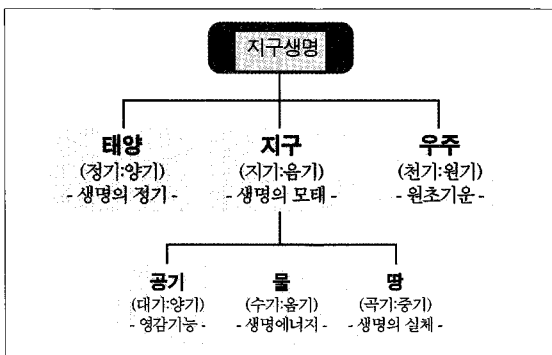
햇볕의 도움을 받아 생명작용을 하는 지구생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보자. 공기는 영감기능을 담당하고, 물은 피로서 생명에너지의 원천이며, 땅은 몸으로서 생명의 실체가 된다. 특히, 땅에선 양기인 공기와 음기인 물이 서로 만나 실제적으로 교접작용과 함께 유기적인 생명작용이 이뤄져 생명들이 생성되는 곳이기도 하다. 또 지구가 오대양(五大洋), 육대주(六大洲)로 구성되었듯이, 사람에게도 오장육부(五臟六腑)가 있어 서로 유기적인 생명작용이 이뤄진다. 지구생명을 구성하는 이 요소들이 조화로운 생명작용에 의해 대부분의 개체생명들이 생성되고 성장한다. 이처럼 지구와 사람은 각 요소들의 생김새와 기능들이 너무나 닮아있다.

지구의 기본요소들이 일으키는 반응과 생명작용들은 인간을 포함한 여타 생명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사 람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먼 옛날부터 이들 요소의 원리 와 이치를 연구한 다음 인간의 삶에 적용시켜 활용해 왔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풍수지리설이다.

1.2 지구에 미치는 생명기운들

생명세계는 대부분이 모권사회로 형성되었는데 지구생명 도 마찬가지다. 지구생명은 우주기운과 태양으로부터 햇별 을 제공받아 많은 개체생명들을 탄생시키는 물론, 이들의 양 육까지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구상에 생명들이 생성되 고 살아가면서 제공받을 수 있는 주요 생명기운은 우주로부 터 천기(天氣), 태양에선 정기(精氣), 지구에서는 지기(地氣), 대기로부터 공기(空氣), 물에선 수기(水氣), 땅으로부터 곡기 (穀氣) 등을 짚아볼 수 있다.

여기서 태양은 양기(陽氣)로서 살림살이의 동기를 부여하 는 아버지와 같다. 반면 지구는 음기(陰氣)로서 양기를 제공 받아 생명을 잉태하고 기르는 모태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다. 지구의 위성인 달도 같은 음기로 지기가 조화롭게 작 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 밖의 각종 별, 은하 등 우주의 생명기운들은 천기로서 생명작용의 바탕을 이루는 원기(元 氣)가 된다.



〈그림 1〉 지구생명에 미치는 생명기운과 역할

태양과 지구를 온전한 하나의 생명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 거로서 기존의 자연과학적인 정의와 새로운 생명사상(生命 思想)의 개념에 의해서다. 먼저 기존의 자연과학이 생명의

여부를 판단한 것은 형이하학적이고도 단편적인 자기조직 능력과 고유한 자기생활 등을 기준했다. 판별의 근거도 불완 전한 인간의 감각과 인식에 의존하여 식별한 다음 규정해 버 렸다. 이것을 다시 이분법 논리에 적용시킴으로써 생명의 본 질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한계성을 보여 왔다.

생명사상에서 생명의 개념은 기존의 자연과학적인 시각 을 포함하여 보다 근본적이고도 형이상학적인 부분과 그 존 재의 지속성을 유지케 하는 상호관계성까지 포괄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여기서 설정한 생명의 개념과 범주는 기존보다 대 폭 확장된 정의다. 이로써 태양과 지구는 물론, 지구의 기본 요소인 공기, 물, 땅 등까지 생명에 편입시키는데 걸림돌이 모두 제거된 셈이다.

2. 지구의 기본요소

여기서 우주계란 서로 유기적인 생명작용을 하고 있는 수 많은 은하와 별들을 거느린 우주생명 전체를 말한다. 우주 어느 곳에서 발산된 생명기운이든 이것이 지속적으로 지구 생명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미 그곳엔 지구에 대해 관심을 가진 생명들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 같다.

이미 오래 전부터 우주생명의 움직임들이 지구촌에도 시 시때때로 감지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간들 은 자기모순과 자기착각에 빠져 헤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주생명은 고사하고 태양과 지구생명의 주요 구성요소들 의 기능과 역할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 운 실정이다.

태양의 정기는 양기로서 생명을 생성시키는 역할을 한다.

- 1) 지구가 생명으로써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필수적인 요소를 말함. 이것은 모든 개체생명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는 요건임.
- 2) '여성'은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고 하였듯이 생명을 탄생시킴으로써 생명의 신비성과 강한 모성을 지닌 어머니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
- 3) 경제나 집안의 갈무리 등 살림살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여기서 햇별에 의한 생명들의 각종 광열작용을 말함.
- 4) 지구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우주의 생명기운들을 통칭함.
- 5) 필자가 주창하는 사상으로서 인문주의의 관점에 의한 생존철학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온 생명의 평화를 전제로 한 생명평등주의의 관점으로 이뤄진 대안 철학사상임.

여기다가 생명의 살림살이에 핵심인 생명에너지를 생성케 함으로써 생명의 지속성을 유지해 주기도 한다. 반면 지구는 음식으로서 태양으로부터 생명의 정기를 제공받아 많은 생명들을 탄생시키고 양육하는 등 실질적으로 살림살이를 꾸려간다.

지구가 온전한 하나의 생명이 되기 위해선 공기의 영기작용, 물의 혈액작용, 땅의 육체작용 등은 필수적인 기능들이다. 이것들을 다시 개체생명의 차원에서 보면 공기가 양기요, 물은 음기다. 그리고 땅은 중성으로서 음양의 교접이 이뤄져 생명들이 생성되는 몸의 역할을 한다. 이들에게 주어진 기능들이 원활히 수행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선 햇빛의 도움 또한 필수적이다.

2.1 공기는 생명의 숨

요즘 들어 염력(念力)으로 지칭되는 영(靈)과 기(氣)에 관한 연구가 각각 여러 측면에서 진행되어 온 결과, 그것에 관한 어떤 성과이든 의미 있는 일로 여겨진다. 이 영과 기에 대한 부분을 각각 분리해서 접근하지 말고 조금만 더 시각을 확대해 보면, 지금까지 영과 기의 모든 작용들이 영기작용(靈氣作用)이란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다.

영기에 관한 우리의 관심이 인간의 건강에서 생명계의 살림살이로 더욱 발전시켜간다면 매우 심오하고 경이로운 영기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여기다가 영기의 기능과 역할이 무한히 넓고 깊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이것을 생명들에게 잘만 적용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유익하고 보람된 방향으로 확대도 가능하다.

생명사상을 통하면 생명의 본질과 정체성에 관한 부분 등 많은 것을 밝혀낼 수 있다. 여기서 공기도 생명력을 지닌 존재이기에 생명으로 규정한다. 공기는 다른 생명의 요소들과 연동하여 생명작용을 하는 지구의 기본요소 중에 하나다. 특히, 공기는 생명의 숨쉬기 혹은 호흡으로서 영감(靈感)이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인간의 경우 단 4분만 호흡이 멈춰 공기를 마시지 못하게 되면 곧 뇌사상태에 들어가 생을 마감하게 된다.

자연의 영기인 공기는 햇빛과 작용하여 지구의 영감기능을 손색없이 이행한다. 동시에 개체생명들은 숨쉬기를 통해서 자연의 영기와 지속적으로 연결성을 갖고 의식작용은 물론 각종 영기작용이 이뤄지게 한다. 공기는 생명의 정기인 햇빛과 작용하여 '생명의 씨알'이 생성되도록 한다. 햇빛의 도움을 받은 공기는 양기로서 음기인 물과 땅에서 교접하여 많은 생명들을 생성시킨다.

지구생명에서는 공기가 영감작용을 맡음으로써 지구생명의 여건조성과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까지 수행하게 된다. 이것의 일부가 지구의 자정작용이라 할 수 있다. 이상적인 영기작용이란 여러 정황들을 분석·판단하는 감각기능을 포함한 신비스런 영적기능까지 총괄하는 영감기능과 이것을 구현하는 동력인 생명에너지 등의 두 기능이 조화롭게 연동되는 것을 말한다.

2.2 물은 생명의 피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을 '지구(地球)'라 부른다. 그러나 오히려 '대양(大洋: Ocean)'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물의 비중이 매우 크다. 바다가 지구표면의 약 3/4을 차지할 정도다. 여기에 내륙의 강과 하천까지 포함한다면 지구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늘어난다. 물은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조건으로서 매우 소중한 존재다.

아메리카 인디언인 오지브웨족의 '하늘의 여주장'은 "갯강이 달려가 물방울을 만들고 바위에 부딪히며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본다면, 그것이 살아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의 정령이 거기 있다는 것을……. 하지만 화장실 변기 속으로 강제로 물을 끌어올리는 순간 그 물은 죽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물의 성향은 '흐름'이다. 이에 역행하는 것은 물을 죽이는 행위란 사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물을 죽이게 되면 생명에 해로운 사기를 발생시킨다는 점도 함께 강조한 말이다. 지구생명의 차원에서 물은 각종 영양분을 필요한 곳에 운반하는 '피돌이'의 역할로 주요한 기능을 한다. 또 물이 햇빛과 작용하면 생명에너지를 생성하는 원천이 된다. 이제 물에 대한 우



리들의 접근법이 인간의 수단인 수자원이 아니라, 우리처럼 살림살이를 하는 고귀한 생명이라는 차원으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단 6일만 물을 마시지 못해도 곧 사망에 이른다. 이처럼 소중한 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물의 성향인 '흐름'이 지속되도록 배려하고 존중할 때만이 물을 살릴 수 있다. 이때서야 우리가 깨끗하고 살아있는 물을 마실 수 있거니와, 우리들의 건강도 지속성을 갖게 된다. 이것이 물과 인간의 공존은 물론, 모든 생명의 건강성 확보와 동시에 지속성도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이러한 접근법이야말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로서, 이 시점에 절실히 요구되는 관점이라 하겠다.

2.3 땅은 생명의 몸

지구생명을 기준하면 밝고 따뜻한 광열을 지닌 태양은 양(陽)이요, 공기, 물, 땅이 상호작용한 차가운 지구는 음(陰)이

다. 이것을 다시 개체생명의 차원에서 보면 공기가 양이요, 물은 음이다. 음양 두 기운이 만나 교접이 이뤄지는 증성인 땅에서는 수많은 생명들이 생성된다.

우리들 삶의 근거가 되고 있는 땅은 개체생명의 산실인 동시에 생명의 근원지다. 아울러 땅은 지모신(地母神)으로서 모든 생명에게 곡기(穀氣)를 제공하고 길러주는 어머니다. 이 땅에선 생명 모두가 평등한 삶을 누릴 권리와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똑같이 부여받았다. 그럼에도 인간은 이기적이고도 불완전한 잣대로서 여타 생명의 삶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거나 마구 재단해 버렸다. 이것은 강물을 거꾸로 되돌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다. 땅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들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에 의해 함께 살아가야 할 근거지인 동시에 공동의 삶터다.

땅이란 크게 흙과 암석으로 이루어졌다. 땅도 인간의 몸처럼 흙은 살결이요, 암석은 뼈로서 생명의 근간을 이룬다. 땅이란 햇볕과 공기, 그리고 물의 도움을 받아 지구생명의 삶이 영위될 수 있는 근거요, 각종 생명작용이 가장 구체적으로 이뤄져 많은 생명들을 생성시키는 실체다. 또 땅은 생명들에겐 필수적인 지구의 기본요소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우리는 땅을 단순히 '땅덩어리'로만 인식한 나머지 무기체인 무생명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땅도 생명작용을 하는 유기체로서 생명임이 분명하다.

땅은 흙이라는 매우 부드러운면서도 섬세하고 민감한 살결을 갖고 있다. 인간이 한 장소만 더럽혀도 그 오염은 금방 넓은 지역으로 퍼진다. 마치 종양이 신체의 여러 부위로 번지는 것처럼 땅은 금방 병들어간다. 지금 땅은 깊은 병으로 몹시 신음하고 있다. 땅은 지구생명을 구성하는 수많은 개체생명을 잉태하여 탄생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생명의 몸이요, 자궁(子宮)이다. 또 땅은 햇볕과 공기, 그리고 물의 도움을 받아 각종 영양물질을 생산하여 개체생명을 양육하는 역

- 6. 에너지 있는 열과 영양기능이 있는 기가 서로의 시너지인 결합을 가진 두 기운이 만나 교접함으로써 결합이 보인된 새로운 생명기운 즉 영기를 생성시켜 생명작용이 이뤄지는 일
- 7. 물을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단으로서 생활의 관리를 위한 자원으로 보는 시각
- 8. 여성의 수정관 일부가 발달하여 된 것으로 태아가 착상하여 자라는 기관

할까지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은 땅도 분명 생명작용을 하는 유기체로서 생명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명백한 근거다.

3. 물의 행성인 지구

인류 최초의 우주비행사인 유리 가가린은 우주공간에서 지구를 보며 “지구는 푸르다”고 했다. 이것은 지구가 물의 행성임을 잘 나타낸 말이다. 지구상에는 많은 양의 물이 존재하고 있지만 수질과 물의 특성은 지역마다 다르다. 따라서 물은 그 지역에 생명의 고유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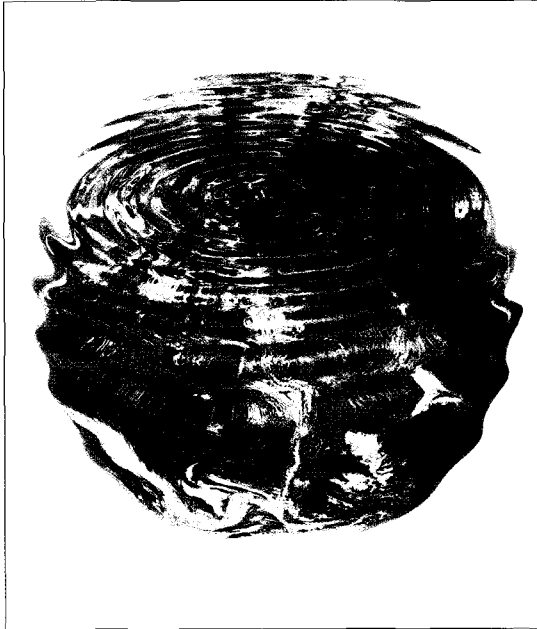
물은 고체, 액체, 기체 등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그 모습에 따라 역할도 달라진다. 물의 분포도를 보면 지구표면의 71%를 바다가 차지한다. 나머

지는 남·북극의 빙하와 강, 호수, 지하수, 수증기 등 다양한 모습으로 분포한다. 또 지구에 존재하는 물의 양은 약 13억 8천500만㎤로 추정되는 가운데 바닷물이 97%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3%가 민물인데 그 중 69%는 남극이나 북극의 빙산, 빙하 등 만년설 형태로 있다. 그리고 지하수가 29%, 호수나 강과 같은 지표수는 2% 정도에 불과하다.

여러 가지 물의 역할 중에 간과할 수 없는 일이 수많은 종류의 물질을 녹이는 용매작용이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많은 물질들을 보다 유익한 성분으로 바꾸어주는 역할도 한다. 뿐만 아니라 물은 태양으로부터 방사되는 광열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줌으로써 순환하는 물질들을 생명에너지로 전환시키는 힘의 원천이 된다. 물은 이것 모두를 훌륭히 감당하고 있다.

31 물은 생명에너지의 원천

물의 생성과 순환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눈이나 비로 지상에 내려 하천과 강이 되어 바다로 흐른다. 다시 증발되어 대기 중의 수증기가 되고, 이것이 또 다시 비와 눈이 된다. 이처럼 물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이동한다. 이 가운데 자연으로부터 필요한 성분과 영양분들을 공급받아 각종 생명에너지를 생성한 다음 다시 생명들에게 제공해준다.



물은 생명의 실체를 형성토록 하는 음기로서 생명의 '기름'을 담당한다. 이것이 햇빛과 공기의 도움을 받아 생명들을 생성함은 물론, 생명에너지를 활성화시켜 생명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동시에 담보해준다. 또 물 자체도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주변의 여건과 변화에 따라 감응하고 여타 생명과 생명작용도 이뤄진다.

물의 성향은 흐름이다. 이것을 끊거나 멈추게 하면 물은 죽기에 그의 역할도 마감

된다. 주로 물로 구성된 사람의 피도 흐름을 멈추면 죽게 되어 결국 사람도 생을 마감하고 만다. 생명에게 물이란 '피돌이'로서 생명에너지의 생성과 운반이라는 고유한 기능과 역할이 주어졌다. 물은 주변 환경과 여건에 따라 갖가지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생명에너지를 생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물도 주변의 지리적인 특성이나 지형지물에 따라 구성하는 요소와 흐름이 달라진다. 그러기에 지역마다 물의 축감, 비중, 성질, 맛 등은 물론 수질까지 다르기 마련이다.

물은 생기가 많으면 그만큼 싱싱하게 살아있다. 반면 물이 오염되면 그만큼 사기도 높아져 병들거나 죽어간다. 아울러 살아있는 물을 마시는 생명들은 물처럼 건강하다. 또 병들거나 죽은 물을 마신 생명들은 그만큼 병들거나 죽게 된다. 물은 대부분의 생명들이 삶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조건이다. 물은 공기와 땅과 함께 지구생명의 기본요소 가운데 하나다. 동시에 물도 하나의 온전한 생명이기에 햇빛의 도움을 받아 공기, 땅 등과 함께 생명작용을 하면서 고유한 살림살이도 한다. 또 물도 다른 생명들처럼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잠을 잔다.

지구에서 해양이 차지하는 비율처럼 인간의 몸도 약 70% 이상이 물로 형성되어 있다. 주로 물로 형성된 인체의 피는 여타 생명들로부터 공급받은 탄수화물과 각종 영양분을 햇빛의 도움 받아 생명에너지로 생성시킨다. 이런 과정은 지구 생명에서 물이 하는 역할과 많이 닮아있다.

물이란 어느 정도의 오염과 변화에 대해서 스스로 주변의 여건을 활용하여 대처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갖추고 있다. 물도 자신의 독자적 삶을 꾸리는 가운데 공동의 역할도 한다. 또 여타 생명과 상호작용으로 생명공동체의 살림살이도 함께 꾸려간다. 물은 생명에게 피로서 햇빛의 도움을 받아 생명에너지를 생성 제공하여 생명의 '기름'을 담당한다. 그리고 개체생명에게 물은 생명의 생성과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 탄화물질 등 각종 영양물질을 생성·공급하는 일을 맡고 있다. 따라서 물은 생명에너지를 생성하는 원천이다.

뿐만 아니라 물은 생명작용으로 양산된 부산물이나 노폐물, 유해물질 등을 걸러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도 한다. 이것을 통해서 건강하고 깨끗한 신체를 유지케 함은 물론, 생명이 활동할 수 있는 힘이 생성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준다. 이와 같이 물은 생명의 생성이나 양육, 그리고 자정작용을 수행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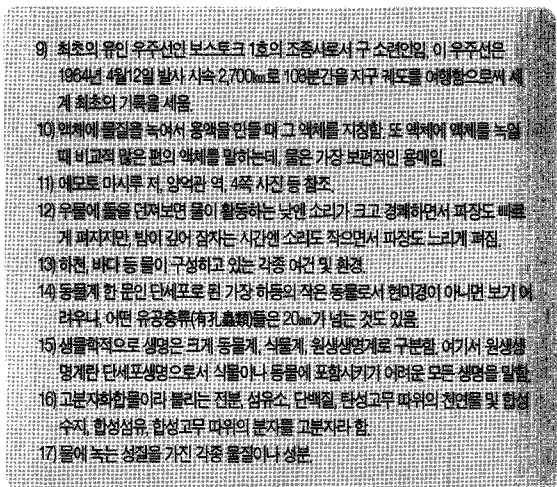
3.2 물 중심의 생명공동체

물을 중심으로 구성된 생명공동체가 하천, 바다 등이다. 지구상의 물은 액체, 고체, 기체 등 여러 형태로 지하와 지상, 그리고 공중 등 지구의 곳곳에 분포해 존재한다. 햇빛과 땅, 그리고 공기의 도움을 받아 왕성한 생명에너지를 생성시켜 제공함으로써 지구생명의 건강성을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아울러 물도 생명의 하나로서 자신의 생명기운인 수기를 확인시켜 주는 계기도 된다.

물 환경(water environment) 속에는 다양한 종의 생명들이 생명그물을 형성한 가운데 상호존적으로 살림살이를 꾸려가고 있다. 특히, 쉽게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미세조류(micro-algae)와 원생동물(protozoa) 등 많은 단세포 원생생물들의 생화학적 작용이 무수히 이뤄진다. 이러한 가운데 여타 생명들에 못지않게 이들만의 고유한 삶도 함께 영위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거대분자(macro-molecule)들과 상호존적인 연계에 의하여 정해진 수순에 따라 매우 정밀하게 생명작용들을 진행한다. 이들의 생화학적 작용을 통해 다른 물질과 함께 기초적인 영양, 질소, 산소, 암모니아 등 각종 물질들을 생성하여 외부에 공급한다. 특히, 식물성플랑크톤과 같은 단세포생물들의 건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야말로 수중생명공동체와 함께 지상생명공동체, 나아가 지구생명의 미래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바다는 각종 용존성분들의 저장고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산소 호흡하는 생명들에게 공기의 화학적인 반응과 작용을 조정하고 통제해 준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 가운데 거의 절반이상이 해양생명들이다. 이들에게도 안정된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환경조건을 만들어주고, 또 생명권도 부여되어야 함은 당연지사다.



가. 생명모순의 확대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 가운데 생명이 아니면 스스로 변하지 못하고, 다른 사물도 변화시킬 수도 없다. 또 생명을 생성시킬 수 없으며, 상호작용도 이뤄질 수가 없다. 이것이 가장 과학적인 시각이요, 만고의 진리이기도 하다. 지구촌에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은 태양의 별과 지구의 공기·물·땅 등의 생명작용이나 도움이 없다면 생명의 생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들은 개체생명의 살림살이에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햇볕·공기·물·땅 모두가 생명작용을 할 수 있는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서 생명임이 분명하다.

지구생명을 구성하는 모든 개체생명들은 지구의 동등한 자식들로서 복사체처럼 닳은꼴로 살아가고 있다. 때문에 인간도 작은 지구로서 그를 닳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전제로 한다면 대기·수질·토양 등의 오염도가 바로 인간들의 건강수치라는 점 또한 부인해서는 안 된다.

자연이 오염되고 훼손 파괴되어 간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병들고 파멸되고 있다는 뜻이다. 산업사회로 대별되는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각종 오염물질의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인하여 자연과 인간 사이에 유발되는 총체적인 생명모순은 더욱 심화·확대되어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 지구생명은 각종 상처와 오염으로 인해 몹시 병들어 거친 숨을 내쉬고 있다. 이것이 이상기후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과학기술이 걸어온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기존의 자세로서는 지구생명의 밝은 미래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지난 역사에 의해서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던 바다.

나. 썩어가는 물

공기, 땅의 오염 상승은 '오염의 순환고리'에 의해 수질오염도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수질오염의 심화는 대부분의 생명들에게 매우 치명적이다. 수질오염은 생명에너지의 생성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생명에너지의 소진을 초래한다. 이것으로 인해 개체생명들은 힘이 빠지면서 움직임이 둔화되고 무

기력 증세가 나타난다. 모든 생명에게 생명에너지의 근원인 물은 그 자체에 이미 공기의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영기의 혼탁까지 일어나 영기작용의 원활성에 장애를 줌으로써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판단이 흐려지는 등 정신신경계에도 심각한 이상 현상이 유발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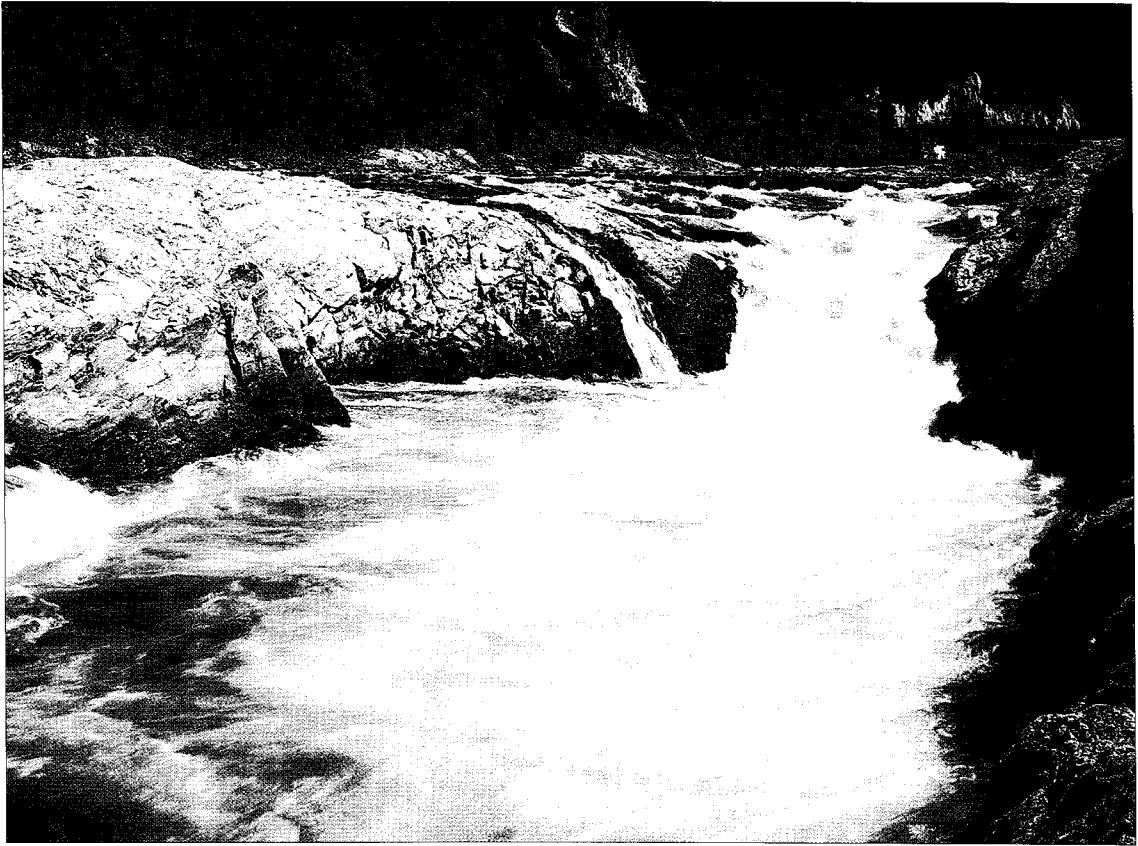
지구생명은 개체생명들이 모인 생명공동체이기에 이들은 서로 조화로운 연동작용에 의해서 존재한다. 인체도 수많은 세포들이 모여 형성된 세포생명공동체다. 서로 연결된 세포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인체가 건강성을 유지케 한다. 어느 한 곳에 이상이 생기면 곧바로 신체 전체에 전달됨은 물론 그 반응이 몸의 모든 부위에 영향이 미치게 된다.

성인 신체의 약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로 볼 때, 인간은 물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인간은 수질오염의 위험성에 그만큼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수질오염이란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수질오염 자체가 생명에너지의 생성을 저해하는 사기로서 살기나 독기를 많이 발생시킨다. 그 사기가 오염된 물을 먹는 생명들의 체내로 유입·축적됨으로써 생명에너지의 생성에 장애와 소진으로 이어져 신체도 허약해진다. 또 물은 공기를 포함하고 있어서 수질오염도가 높아지면 그곳에 사는 생명의 성품도 물의 사기를 닳아 점차 이기적이고 잔인해져 간다.

물 속에도 수많은 생명들이 수중생명공동체를 이룬 가운데 서로 균형을 유지하며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다. 자연 상태의 강이나 못에는 상류에서 떠내려 온 각종 유기물들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다. 이것을 먹이로 하여 플랑크톤이 자란다. 이 플랑크톤을 먹이로 한 물고기들이 살게 됨으로써 물은 생명의 조화 속에 자정능력을 갖게 되어 건강한 수중생명계를 형성·유지한다.

흔히 수질오염이란 유기물이나 폐수가 흘러들어 자연수질에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생명의 생활환경이 나빠지거나 생명계에 영향을 줘 물의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예전의 수질오염이란 사람이나 가축의 배설물에 의한 병원



성 미생명, 또는 기생충의 발생 정도에서 머문 수준이었다.

최근엔 부패성 유기물질의 과다한 유입과 유독한 중금속의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오염의 정도도 훨씬 심각하다. 특히, 우리도 1980년대 이후 호수나 저수지, 그리고 댐 등에 과다한 영양염류(營養鹽類)가 유입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수질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과거엔 일부 선진공업국에 의해 국지적으로 발생하던 수질오염이 산업혁명 이후 급속도로 확산되더니, 이젠 전 지구촌의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로 각 산업현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함유된 맹독성 화학물질과 중금속 등의 유독물질로 인해 수질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4. 건강한 하천 만들기

우리들이 어떤 생명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구성되었느냐에 따라 붙여진 명칭들도 서로 다르다. 먼저 인간 생명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사회(社會)'라 한다. 또 공기 생명 중심의 공동체는 '대기(大氣)'라 하며, 물 생명을 축으로 한 공동체를 바다 혹은 '하천(河川)'이라 한다. 그리고 땅 생명을 기반으로 이뤄진 공동체를 '대지(大地)'라 일컫는다.

우리 속담에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듯이, 모든 생명들은 좋아하는 생명끼리 서로서로 모여 살아가기 마련이다. 오늘 의 논점인 하천도 마찬가지다. 물이란 생명을 좋아하는 생명들이 모여 이룬 생명공동체가 바로 하천이다. 어떤 생명 이든 모두가 부족함이 많은 미완의 존재다. 그러기에 다양한 만남을 통해 서로의 부족한 점들이 보완됨으로써 자연

10 물속에 존재하는 각종 생명들이 형성한 세계

스럽게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건강한 하천이란 조건도 결국 그 하천에 얼마나 다양한 생명들의 조화로운 삶이 확보되고 유지되는가가 바로 하천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는 의미다.

하천은 물을 좋아하는 생명들이 모여 살아가는 삶터이기 에, 우리들도 물을 사랑하는 구성원의 한 개체로서 하천에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하천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기존 하천생명계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오직 인간의 이기적인 관점과 입장만 내세우고, 마치 집행자나 주관자처럼 접근하기에 하천생명공동체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것은 '사회'라는 인간 중심의 공동체에 물이 마구잡이로 밀고 들어와 그에 맞는 세상을 만들어 버리려 한다면, 인간 위주의 사회공동체가 온전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다.

물은 우리의 수단인 수자원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소중한 생명이다. 동시에 동등한 지구생명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물의 성향은 흐름이다. 따라서 물은 흐름을 끊거나 멈추게 하면 죽는다. 이제 우리들이 생명인 물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성향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인간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세계에서도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들 서로 간엔 마땅히 갖추어야 할 예의가 있고,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 또한 있기 마련이다.

인간들은 도구를 사용하면서 먹이사슬의 쟁점에 오른 후 일방적으로 자연계를 이탈하였고, 더 나아가 여타 생명들에 대한 도의마저도 파괴해 버렸다. 이때부터 자연과 인간 사이에는 생명모순의 서막이 올라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이제 우리들이 반성하고 성찰적인 자세로 자연계에 복귀하여 여타 생명들과의 예의와 도리를 다할 때 비로소 생명계에도 진정한 평화가 다시 찾아들 것임을 확신한다.

생명계의 건강성을 생명의 다양성 확보에서 찾듯이, 하천의 건강성이 담보되기 위해선 하천에 다양한 생명들이 서식할 수 있도록 좋은 여건들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일이다.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구호나 수식어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물의 친구가 되고 동반자가 된 다음, 하천에 관한 모든 일은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 우리가 어떤 생명이든 생명을 대할 경우 이해적이면서 차가운 머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따스한 가슴으로 만나야 서로 소통이 이뤄진다. 같은 선상에서 생명인 하천을 살려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란 뛰어난 기술이나 앞선 과학이 결코 아니다. 물 생명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우리들의 '따뜻한 가슴'이 바로 그 해답이라는 결론을 맺으면서 마무리 짓고자 한다. ●